

강진군,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로 우울 등 힘든 군민 대상

심리지원 및 힐링 꾸러미 제공해

강진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심리지원 및 힐링 꾸러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가정을 방문해 환자에 대한 심층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이에 따른 이동 제한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강진군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안위를 살피고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 및 가족 모두에게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 여부와 위생수칙 등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며, 우울 수치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하거나 정신의료기관까지 연계하게 된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 읍면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보내는 환자들을 위해 인지재활요법 및 생활의 활력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힐링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번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

질환자 및 가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된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인 중증정신질환자들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증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신질환 증상관리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참여한 문의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061-430-5943)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보성군-한국전력공사, 복지 사각지대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성군은 지난 2일 군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지사장 강봉완)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전기검침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요원으로 병행 활동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와 이웃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이후 신고와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는 전기검침원이 집집마다 전기 검침을 위해 방문할 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서 보성군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군 또는 읍·면은 위기가구를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해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 실정에 밝은 검침원 분들이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실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는 한편 보성지사에 감사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군 인적안전망이 더 강화되어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보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역순기자

마을복지계획 100인 원탁토론회

순천시,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 130여명 참석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11개 읍면 마중물보장협의체위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마을복지계획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탁토론회에는 지난 10

월 한 달 동안 11개 읍면 지역별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마을복지란 무엇인가? ▲마을복지를 통해 기대되는 순천시의 변화, ▲순천시 농촌지역 마을복지 비전 만들기 등 3개 주제로 조별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마을복지계획수립단은 사각지대 없는 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마을복지비전으로 내놓고 봉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순천시의 변화된 모습으로 발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3개 동지역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11개 읍면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마친 만큼 향후 마을 복지계획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21년부터는 24개 읍면동 전체에서 주민자치회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휴먼인러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곡성군 죽곡면, 보건복지서비스 통한 취약가구 지원

곡성군 죽곡면(면장 기명주)에서는 지난 7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휴먼인러브와 연계하여 11월 2일부터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7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가구를 추천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붕수리, 도배·장판 교체 및 전기 안전 보수 등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한다.

죽곡면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죽곡면 희망드림복지반



장이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죽곡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의뢰하여 방문 상담을 실시 후 민간 외부자원을 연계·지원한 사례다.

고령의 할머니께서는 “이번 거곡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의뢰하여 방문 상담을 실시 후 민간 외부자원을 연계·지원한 사례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